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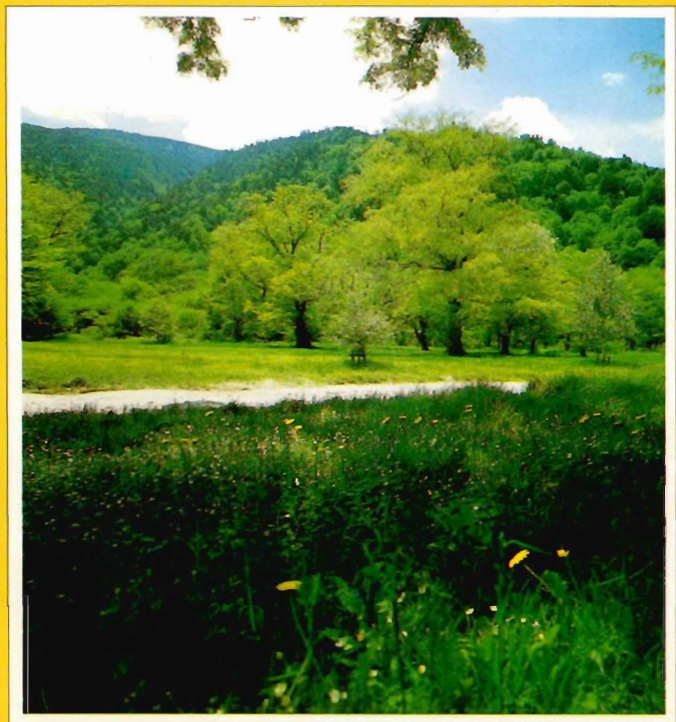
6

가정예배 안내서

1993

충현의 만나

누가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전 교구의 영적 부흥과 배가 성장을 위하여
5.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6.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7. 세계 전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6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6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한용관·성봉환·
조운재·장봉생·김수상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서론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였던 ‘누가’라는 데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의 저술 연대는 바울의 투옥 생활이 끝나던 AD 62년 이전이라고 본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본 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2년 동안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서의 수신자는 서두에 있는 ‘데오빌로’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서는 데오빌로를 포함한 이방인 개종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불신자들의 공격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특성과 사역이 본 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본 서의 내용은 ① 인자의 출현(1:5 ~ 2:52) ② 인자의 공생애 준비(3:1 ~ 4:13) ③ 인자의 사역(4:14 ~ 9:50) ④ 인자의 배척받음(9:51 ~ 19:27) ⑤ 인자의 고난과 부활(19:29 ~ 24:53)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 하리라』(1:17)

세레 요한의 탄생은 온 세상에 기쁨이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을 확인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레 요한이 담당할 사역을 볼 때 기쁜 일이었습니다. 세레 요한 그의 사역을 담당하는데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이란 하나님을 향한 길을 단호하게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서 일어섰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도, 고난도 받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오직 하나님 만으로 가득찼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성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회개를 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과같이 영혼에 대한 열의와 결단, 그리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기도 / 주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1:37)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인간 편에서 두려운 일입니다. 사가랴도 마리아도 주의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무서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되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31절-33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문제는 ‘나는 사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태를 합니까?’ 지극히 당연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는 이 사실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한 마디로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성령충만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어 더욱 더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케 하소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1:45)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방문 목적은 엘리사벳의 수태에 대한 확인이요 자신에게 임한 놀라운 사실에 대한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방문을 해야겠다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셨기에 빨리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령충만한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이 놀라운 영접에 심령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쁨이 솟아올라옵니다. 기쁨이 넘치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찬양되어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환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어느 여장부, 왕후보다도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녀를 복되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두려움을 확신으로 기쁨으로 바꿉니다. 그녀는 한낱 계집종에서 존귀한 자로 된 것입니다. 땅에 속한 비천한 자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 분 때문에 마리아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 기도 / 예수님만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탕회장 신성중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1:58)

요한이란 '여호와와 선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와 선물로써의 즐거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을 얻게 된 엘리사벳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 습니다. 노년에 결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또 한 가지는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의 입에 말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둔한 입술이 변하여, 불신의 마음이 변하여 찬양의 입술로, 기쁨의 마음으로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먼저 이웃과 친족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58절). 그리고 또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66절). 이 모든 일을 본문에서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 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주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주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있는 곳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넘치게 나타납니까?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려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 기도 /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소서. 충현의 온 성도들은 주님의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습니다』(1:75)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직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68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 절망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로 물든 세상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둘째는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약속입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가랴와같이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전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주여, 성령충만하여 찬양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2:7)

로마제국은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징병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었 습니다. 이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머물게 됐습니 다. 마침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대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출 산의 때였습니다. 문제는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사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모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속히 머물면서 해산할 수 있는 곳은 마 굿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마굿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 관 밖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불신앙 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세상입니 다. 사랑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한 사 람도 방을 내주는 자가 없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 을 사랑하심으로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도 사관 밖에 머물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 도인이란 모양만 가지고 능력없이 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만을 생각하며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우 리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 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속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관 밖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항상 머무시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 기도 / 주여, 항상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당회원들이 주님과 함께 강건함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소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2:20)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목자들이 맨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신분의 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낮고 천한 버림받은 신분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목자들의 천한 신분은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한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도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기쁨의 좋은 소식(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에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와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아이신 구주를 전했고 평화의 복음(14절)을 재빨리(16절) 전했습니다. 그들은 전한 후 듣고 본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세입니다.

▶ 기도 /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2:24)

본문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기록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율법이란 레위기 12장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라고 했던 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가 드린 예물은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것을 드렸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아 가난은 어찌면 우리 주님이 누리실 분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분은 가난한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가난한 업종에 종사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어렵고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 한 쌍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믿을 것이 못되는 사치품이 아니라 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같이 비둘기 한 쌍이라도 정성껏 드립니다.

▶ 기도 / 우리의 작은 예물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2:25)

본문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의롭고 경건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사실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하심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물뱃듯 쏟아부어주시는 일보다 앞서 일어난 현상임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그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서 가장 현란한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로 유대인의 신앙이 빛을 잃고 어두운 때에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통해 이스라엘에 위로(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붙여준 이름)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는 성도의 숫자가 아무리 적다 할 지라도 사탄은 경건한 성도를 절대로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을 받음으로 주의 구원(30절)을 보았고, 이방을 비추는 빛(31절)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건하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소돔 땅에는 롯이 있었고, 아합의 때에는 오바다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시대에는 다니엘이 있었으며, 시드기야의 치세 때에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유대교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는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우리 가정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시며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소서.

『과부된 지 팔십 사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아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2:37)

시므온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안나에 대한 기록이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한 남자에게만 아니라 또 한 한 여자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안나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고 또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우 큰 교훈을 받습니다. 안나는 거의 흠을 잡을 수가 없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결혼 생활 7년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청춘에 혼자되어 그 고독과 시련을 참기에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흠없이 84년이란 세월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37절).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언약궤와 제단이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둘째로 안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37절) 자신을 부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절제하여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안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여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나와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며 교회에서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열납되어지는 영으로 하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3:9)

본문에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저들의 부패와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기로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악을 묵과하며 회개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눅 6:26)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갈 1:10)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요한은 지옥의 고통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진노(7절)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회개는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9절). 또한 경건한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깨뜨렸습니다(8절). 이렇게 참으로 진실하게 전하는 종을 단죄하여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같이 인기에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참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합시다.

▶ 기도 / 주의 복음에 능력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3:21)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신다면 몰라도 그 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선뜻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로 보아 이 예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단순히 겉치레의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물에 어떤 마 술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혹은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세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받으신 예식입니다.

세례의 예식에서 세례식과 기도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1절에도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수반한 세례가 될 때 형식적인 예식의 틀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마에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없는 세례예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세례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례는 기도와 병행하며 성령이 임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남녀전도회가 말씀 위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깨어 있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4:8)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걸어왔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면 주겠다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지켜준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거짓 인용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이 바른 인용이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무리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게 인용할 줄도 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마치 자기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상대를 위해주는 체 하고 접근합니다. 불평을 불러 일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는 마귀이니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나를 도와주는 체 하면서 접근합니다. 또 말씀도 그럴듯하게 인용할 줄 아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니다.

▶ 기도 /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 민족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4:8)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듣고도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이들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은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도 거절당하였고, 오직 사렙다 과부만 알아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오직 나아만에게만 고침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보다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 끝까지, 누구에게나, 어느 족속에거나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가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가서 밀쳐내리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므로 피해 가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더욱 더욱 필요로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소련을 무너뜨리신 것과같이 북한도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4:43)

예수님은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므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녀는 곧 병이 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색 병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그 동네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오래오래 계시면서 병든 자를 항상 고쳐주시도록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길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나타내고자 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병고치는 분으로만 알아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아셨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것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지 병을 고침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침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형벌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적의 신앙, 단지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됩니다. 죄를 해결해주시는 구주로 예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 기도 / 항상 예수님이 우리 죄 해결하시려고 흘리신 보혈을 인해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써이다』(5:8)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 중에서 몇몇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힘쓰고 애써도 아무런 수확도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이 말씀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용서해주시는 분으로 의지하겠다는 전인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부의 직업보다 더 귀한 죄인 구원하는 일에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행하시는 이적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그것을 표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존하시고 순전무결하시며,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이며 죄인인 자신을 알게 되어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항상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이 뿌리가 되어 현지인들이 전도자로서 자라나 빛진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5:16)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문둥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제사장에게 가서 구약에 명한 대로 보이고 나왔음을 제사장이 선언하게 하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제사장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늘의 병이라고 믿고 있는 이 문둥병을 고친 분이 있다면 그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구세주인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사람들이 구름 떴을같이 몰려왔습니다. 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또 그분의 말씀도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무리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가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며, 순종하며, 새 힘을 부여받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수시로, 일이 바쁠수록,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유헤세 펠신도 선교사(일본)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5:24)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메고 온 사람들과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비난을 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죄를 선언하시고 이어서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금방 나아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이 나은 것은 죄가 용서된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권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는 병이 없는 완전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 감격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보혈로 죄를 사하시어 우리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현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뢰하며 묵임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장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5:31,32)

예수님은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치시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죄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 진땀하거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땀흘려 기도하시지 않고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면에서 세상 의사들과 다릅니다. 첫째, 세상 의사들은 잘못된 부분을 수술로 잘라 없애거나 아니면 약으로 병의 증세를 없애는 식으로 치료하지만 예수님은 병의 외부적인 증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이 세상의 질병은 죄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 버리셔서 이 세상 질병이나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둘째, 이 세상 의사들은 병자를 치료하지만 자신은 그 병과 무관합니다. 요즘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용한 암 전문의라 하더라도 환자의 아픔이나 고통을 나누어 지지는 못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동정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병을 동정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병을 부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얼마간 덜어서 고통을 분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우리의 어깨에서 몽땅들여다가 자신이 혼자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질병으로부터 놓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되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우리 병을 몽땅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사 예수님을 압니까? 세상 의사를 의지하는 절반이나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 기도 /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하루 속히 낫게 하여 주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6:9)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두렁으로 된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무척 고파나봅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밀 이삭을 홀고 손으로 비벼 그것으로 요기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 계명을 범한 행위로 정죄하였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아마비로 한쪽 팔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안식일 계명에도 위급한 환자는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 환자는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하루 더 지나서 내일 고친다 해도 죽지 않으므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루 굶어도 죽지 않는다, 지금까지 평생 불구자로 살아왔는데 하루 더 지난다고 당장 죽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며 남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커녕 남의 악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남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함께 아파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깊은 필요를 아시고 함께 아파하며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 기도 /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와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돌아온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위해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6:12)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는 12제자를 세우는 일이며 나머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것은 혼자 산에 올라가 밤을 세워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지만 여기에 보면 일부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것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목숨을 내어걸고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정하여 제2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공생애를 완성하는 십자가를 앞두고 겔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세워가며 피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는 혼자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맞이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민합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까?

▶ 기도 / 각 교구의 목요 산상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김창수(수리남) 선교사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언어와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6:30-31)

이 말씀은 마태의 산상보훈과 누가의 평지 강화를 마무리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흔히 이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나오는 독특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종교에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는 부정적인 형태 즉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행동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유대 랍비 힐렐도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은 네 동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율법의 해석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황금률의 긍정적인 가르침과 부정적인 가르침은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가르침은 ‘네가 강도당하고 싶지 않거든 강도짓 하지 말라 남의 모욕이 싫거든 남을 모욕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르치지만 긍정적인 형태의 가르침은 “네가 사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사랑하여라 받는 것이 좋으면 먼저 주어라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싶으면 먼저 감사해라” 등 입니다. 이 가르침은 남에게 거침이 되지 않으려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면에서 선을 행하는 선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두 배로 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황금률을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선의 공정 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황금률을 생활에 실천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봉사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에서 중국을 위해 예비하신 홍콩의 많은 헌신자들의 헌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비판하지 말라 ……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6:37)

우리는 간혹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명백한 오류를 보면서
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난 아무말도 하지 않을꺼야’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혹
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판단 기준을 가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지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네로 황제에 관해서, 김일성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개, 돼지라고 극한 말씀까지 하십
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
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15)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비판의 뜻을 바로 알려면 37절 하반
절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용서하
라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바울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판은 용서가 없는 정죄, 내 의
를 드러내기 위해 남의 흠을 지적해내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
의 명백한 잘못을 볼 때 지적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
쫌해서 나의 우월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정말 형제가 바로
되는 것을 위한 마음으로 말을 해주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못을 지
적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도 / 교회에서 혈투는 말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지적만 넘치게 하소
서. 김형선·한영자(뉴질랜드), 이기성·박정아(호주) 평신도 선교사들
이 현지의 사역자와 교민과 잘 융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마음
이 되어 사역하게 하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 내 하인이 낮게 하소서』(7:6, 7)

백부장은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시는 것은 하늘을 향한 영혼의 창문을 열고 닫는 힘을 보시고 놀라워하십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만 하늘의 영광이 우리 위로 흘러들어 오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놀라신 것이 두 종류입니다. 한번은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저희를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놀라셨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크게 놀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십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시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집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낮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받아들이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주님이 놀라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되어 기도하고 성령충만함으로 전도하여 25%의 벽을 넘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7:14)

예수께서는 뒤를 따르는 상당히 큰 무리들과 함께 성읍으로 올라오다가 문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들의 죽음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과부와 만나자 긍휼을 베푸시고 살리셔서 한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한 가정을 회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애곡한 사건(왕상 17:17-24)과 엘리사가 수넬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 시체 위에 반복해서 접촉시킨 사건(왕하 4:32-43),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의 시체 앞에서 열심으로 기도한 사건(행 9:36-43)들과 주님께서는 관에 손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는 명령으로 영혼을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환원시킨 사건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엘리야나 엘리사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시체나 관가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는 사회적 부정법을 뛰어 넘으셔서 과부의 슬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과부를 돌보라는 율법을 준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힘없는 과부들을 돌보라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교회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그러한 가정들을 찾아서 돌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제2의 6·25가 이 땅 위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날을 속히 이루어주소서.

『.....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7:32)

당시 세례 요한은 해롯의 불륜관계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책망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해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해방의 기쁨을, 자신들의 고통에서 해방해 주실 메시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예스나 노가 아니라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 “내 사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을 유흥에 참여치 않는 어린아이들로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인용된 비유는 ‘결혼식’, ‘장례식’ 놀이로서 먼저 한편이 결혼식 흥내를 내어 곡을 하면 다른 한편은 그 곡에 맞추어 가슴을 치며 울게 되는데 춤도 안추고 울지도 않는 어린아이들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로 자기 의를 내세우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난한 것에 대하여 비유를 통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거하면서 매뚜기와 석청만을 먹는다는 이유로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였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यो,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복음과 주님과 교역자들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기도 / 세례 요한과같이 경건하며 깨어 기도하는 교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장애자들 위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7:48)

시몬은 호기심과 큰 선지사라 부를 만한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와 자신의 명예심을 위해서와 고소할 빚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취했지만, 한 여자는 예수와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과거의 죄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면서 주님을 통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신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의와 감사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몬의 초청과 식사는 자신의 외식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던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당시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를 풀어 발을 씻고, 가장 아끼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전폭적인 헌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이미 시몬의 생각을 아셨음을 나타냈고, 그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똑같은 탕감의 은전을 받았으면서도 예수께 감사하지 않은 완악한 바리새인에게 그와 그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완전한 구속과 영육의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와 헌신하는 것이 죄악에서 구속받는 유일 한 길이며, 참된 평안을 얻는 비결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바리새인과같이 완악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금요찬양집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8:15)

이 비유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주는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법을 인용한 것으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 유형의 밭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씨들이 떨어진 네 종류의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각각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또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며 공중의 새들에 의해 먹힘을 당했으며,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일단 뿌리를 내렸지만 습기가 없어 곧 말라 죽었으며,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나 가시가 그 씨의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과는 달리 백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그와 더불어 미세한 출발과 최후의 거대한 수확을 비교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현재는 미약하지만 장차 크고 창대하게 될 것을 암시함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 / 복음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백배로 결실하게 하소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8:18)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등불을 침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발하는 등불의 소임을 다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러한 등불 비유로 말씀하심은 믿는 자들도 이 등불처럼 자신들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즉 믿는 자들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믿는 자들은 불의, 거짓, 탐욕, 우상숭배 등과 같은 세상의 어두움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의 빛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불의가 성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즉 복음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날 악인들의 모든 죄악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 계획된 말과 행동 등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죄악들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죄악들을 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삼가 행동을 조심하며 빛된 성도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 기도 /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나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8:26)

호수에 광풍이 불어 치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결과 거의 침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같은 노련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으나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후에야 그들은 누워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구조의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절한 요청이 결국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고,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있다가 절대절명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큰 위로요 축복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존심 등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문제 해결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힘이 가장 밑바닥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삶의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며 온전하여지고 복음 전도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 기도 / 언제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위로와 축복을 받게 하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7월도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제21과 하나님의 사랑

· 찬송 : 404장, 416장 · 성경 : 요3:1-16

· 요절 :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아가페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 사랑의 성격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무한하게’란 뜻으로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유한하고 제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2. 사랑의 창조자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주셨으며, 친히 그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

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3.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란 죄인된 인간들, 곧 우리들을 가리키며,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을 가리킵니다.

4. 사랑의 목적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적용

1.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셔서 나를 구원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간증해봅시다.
2. 내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간증해봅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제22과 하나님의 말씀

· 찬송 : 241장, 399장

· 성경 : 요 5:39-47

· 요절 :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전파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참 메시아(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 불신자는 성경도,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곧 메시아(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바로 믿지 못했고, 나아가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불신자는 성경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 용

1. 내가 성경을 읽고 듣는 중에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서로 나누어봅시다.
2.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느정도 읽고 있는지요?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서 올바른 신앙 생활 하도록 인도하여주소서.

제23과 하나님의 뜻

· 찬송 : 431장, 217장 · 성경 : 요 6:38-45

· 요절 :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에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1. 아버지의 뜻: 아들을 믿는 것(39절, 40절)

죽음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영생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은 단순한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2. 유대인들의 빈정거림(41절, 42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 을 듣고 빈정거렸습니다. 이들의 빈정거림은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육의 양식인 떡으로만 이해했기 때

문입니다. 불신앙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3. 내가 다시 살리리라(43절 - 45절)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로 인해 수군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을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다 구원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용

1.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믿게 하셔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알았습니다. 결국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봅시다.
2.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신앙 생활의 유익이나 기적 등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 분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전도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는 데 열심을 다하도록 힘 주소서.

제24과 하나님의 선택

· 찬송 : 431장, 410장 · 성경 : 요 15:1-6

· 요절 :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
져 사르느니라”

신앙 생활은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믿고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그 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 인해 많은 신앙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1절).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 결국엔 댕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인생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기에 더 이상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시 80:8-16). 그러나 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2절 - 4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

나눔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영생의 생활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5절, 6절).

열매맺는 나무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도 아름답고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나무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계속하여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 분께서 나의 주인되셔서 나를 인도해주심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적 용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물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씩 발표하고 결심하도록 합니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저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겪게 될 수고와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게 하소서.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 날의 기도와 그 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